

01 교회소식

2014 연합 총회 실시

2014년 새해를 이끌어갈 교역자, 장로, 권사, 선교회, 교구, 기도제 물의 머리된 일꾼들이 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출됐다.

02 생명의 말씀_ 지혜 시리즈 3

화평의 지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넓혀주고 아름다운 마음을 이루려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과 화평해야 한다.

03 기획특집

응답과 축복을 받기 위한 자기 점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든지 주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응답과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04 간증

“세상 것을 끊으니 주님 사랑이~”

세상 좋아하던 것을 끊고 기도하니 축복이 임했다는 신부정 집사와 컴퓨터 게임을 끊고 변화된 네팔 사가르 수나와르 형제 간증.

만민뉴스

제610호 2013년 12월 1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2014년을 이끌어갈 주역들이 선출되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영적 질서 확립된 연합 총회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2014년 우리 교회 각 기관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출하는 총회가 진행됐다. 다가오는 새해는 가나안성전 건축과 세계 선교를 비롯한 우리 교회 사역과 맞물린 매우 중요한 시기로 총회에 대한 성도들의 관심과 기대가 증폭됐다.

11월 24일 저녁예배 후 각 선교회연합회 총회가 있었다. 본당에서는 기혼 여성도들의 모임인 여선교회총연합회, 2성전에서는 기혼 남성도들의 모임인 남선교회총연합회, 3성전에서는 미혼 33세 이하 대학생, 직장인들의 모임인 청년선교회연합회, 4성전에서는 미혼 34세 이상 직장인들의 모임인 가나안선교회연합회 총회가 있었다.

남선교회총연합회는 회장에 송석길 장로, 부회장은 성낙훈·김병희 장로가, 여선교회총연합회는 회장에 조현숙 권사, 부회장은 권하선·김장희 권사가 선출됐다. 가나안선교회연합회는 회장에 정성구 장로, 부회장은 신수일·박해상 집사가, 청년선교회연합회는 회장에 송승철 형제, 부회장은 송지형 교육 전도사·정준영 형제가 선출됐다. 이날 각 선교회 회장, 부회장 투표도 있었다.

이에 앞서 남·여지역장연합회, 남·여조장연합회, 남·구역장연합회, 여·구역장총연합회를 비롯해 교역자회, 장로회, 권사회, 기도제물연합회, 에스더회, 학생주일학교, 아동주일학교 등이 무기명 투표를 통해 회장단을 선출했다.

이번에 2장로회 부회장과 남지역장연합회 부회장에 새롭게 선출된 구평서 장로는



“마지막 때 섭리를 이루는 귀한 제단에서 복된 사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회원들이 천국 새 예루살렘 소망으로 믿음의 신속한 성장을 이루도록 마음 다해 섬기겠습니다. 목자의 은혜로 무수한 영혼이 영과 온 영의 열매로 나올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행복하게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다년간 여선교회총연합회 회장직을 역임

해온 조현숙 권사는 “영광스럽고 귀한 사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목자님의 영혼들을 향한 아름답고 진한 사랑을 더욱 뜨겁게 전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회원들은 매년 총회 시 무기명 투표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

고 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려면 첫째 기도하는 사람, 둘째 온전한 주일을 지키는 사람, 셋째 온전한 십일조를 하는 사람, 넷째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리는 사람, 다섯째 희생하고 순종하며 온 집에 충성하는 사람, 여섯째 사랑과 덕이 있는 사람, 일곱째 리더십이 있는 사람, 여덟째 겸손한 사람이어야 한다.

총회 결과를 살펴보면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을 닮은 영의 마음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선출했는지 알 수 있다. 학연, 지연, 나이, 지식이나 부(富) 등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와 함께 영적 믿음으로 영혼 구원에 앞장설 일꾼들을 찾아낸 것이다.

이번 총회를 통해 각 기관에 영적 질서가 더욱 굳건히 확립됨으로써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라는 우리 교회의 비전이 더욱 크게 성취될 것으로 기대된다.



11월 24일 주일 저녁예배 후 각 지정된 성전에서 치러진 선교회연합회 총회는 그 어느 해보다 뜨거운 열기 속에 많은 회원이 동참해 다가올 2014년에 대한 기대감을 더했다(사진은 투표에 참여하는 여선교회 회원들, 남선교회 대표단, 선출된 뒤 회원들에게 인사하는 청년선교회 일꾼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공홀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야고보서 3:17)

화평의 지혜

심, 불편한 감정 등 비진리의 죄성들을 온전히 벗어 버려야 합니다. 죄악을 벗고 성결한 마음을 이뤘을 때 비로소 자신과 화평할 수 있지요. 또한 부부, 자녀, 친구, 동료, 이웃 등 ‘모든 사람과의 화평’을 이루고 나아가 ‘하나님과 화평’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담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데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죄를 피흘리기까지 싸워 버리며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림으로 자신과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신과 화평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도 화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셨습니다. 선하고 교양 있는 사람들, 온유하고 순종하는 사람들과만 화평한 것이 아닙니다. 배움과 교양이 부족한 사람들, 죄인과 세리를 대할 때도 사랑으로 섬기고 화평을 이루셨지요. 또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셨습니다.

2. 성공의 열쇠인 화평의 지혜

하나님께서 화평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화평이야말로 모든 일을 하나님 뜻 가운데 해결해 갈 수 있는 성공의 열쇠인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끌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데도 겸손해 사람들과 유대관계가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만해 상대를 무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두뇌와 능력을 소유했다 해도 상대를 무시하고 화평을 깨뜨리면 큰 일을 이룰 수 없지요.

조선시대 조광조는 잘못된 제도를 바로 잡아 이상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과감한 개혁 정책을 단행하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왕도 적극적으로 지지해 줬지요. 그러나 너무 급진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반대파의 반발에 부딪히게 되고 결국 누명을 써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만일 조광조가 자기 주장을 굽히고 반대파를 포용해 화평했다더라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직장에서 실적을 많이 올리고도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독불장군처럼 자신의 능력과 지혜만 앞세워 직원들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과 형편은 무시하고 자기 고집과 자기 스타일만 주장하지요. 그러니 아랫사람은 물론 상사와도 부딪히고 결국 분위기를 해치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맙니다. 아무리 자신의 능력이 출중해도 화평을 깬다면 지혜가 부족한 것입니다.

둘째로, 화평이 지혜라고 하는 이유는 화평이 깨지면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일을 이루는 데 화평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재능이 뛰어나도 화평을 깨는 사람은 쓰임받기가 어렵습니다. 일을 계획하고 직접 뛰는 것은 사람이지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하나님 일을 하는 과정에서 화평이 깨진다면 원수 마귀 사단에게 송사거리를 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지요.

사람 편에서 열심히 일한 것 같아도 영적으로는 실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재능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정도 있어 사명을 주고 싶지만 주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상처를 받는 등 여러 잡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화평이 중요한 지혜입니다. 능력이 부족해도 화평을 이뤄 하나가 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시고 열매를 보장해 주십니다.

3. 화평하려면 마음에 선을 이뤄야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려면 마음에 선을 이뤄야 합니다. 화평을 깨는 사람 중에는 자신이 악하다고 생각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선을 주장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있기에 화평이 깨지는 것입니다. 선을 추구하는 사람은 상대 유익을 구하며 화평을 깨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도 서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남편 입장에서, 아내 입장에서 서로가 자신에게 맞춰 주기를 바라지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낮아져서 섬긴다면 부부, 친구, 동료 어느 누구와도 화평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는 쪽을 고집하고, 나 보기에 옳은 것, 내게 편한 쪽, 내가 드러나는 쪽을 주장한다면 바로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리를 배웠어도 마음에 선을 이루지 못하면 말과 행실에서 선하지 않은 것이 나옵니다. 내 유익을 구하며 고집하다가 상대를 찌르거나 상처를 주고, 무례하게 행동하기도 하지요.

선한 사람은 범사에 상대의 마음을 편하게 해 줍니다. 하나님 나라에 더 유익한 것을 구하되 상대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고려하지요. 상대가 불의를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최대한 맞춰 주려고 합니다. 설령 내가 더 옳아도 상대가 다른 의견을 주장할 때 굳이 내 의견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심에서 상대를 섬기고 희생하며 낮아지고자 한다면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있고 아무리 악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와 부딪치기 싫고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비진리와 타협해 간다면 이는 화평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화평을 이룬다는 명목으로 비진리와 타협하는 일입니다. 만일 어떤 성도가 핍박하는 가족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오늘 하루는 예배를 쉬어야겠다.” 한다면 이것은 화평이 아니라 타협입니다. 이런 경우 자칫하면 상대는 물론 자신조차 하나님을 떠나 사망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가족과 부딪치는 것이 싫어서 명절에 제사상 앞에 절하고, 회식자리에서 상사의 눈치 때문에 술을 마시는 행위는 겉으로는 잠시 화평을 이루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죄의 담을 크게 만들어 화평을 깨뜨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하셨으니 하나님과는 물론, 모든 사람과도 화평을 이뤄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학교, 직장, 사업터 등 자신이 속한 분야마다 아름답게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혜가 있으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마음을 쉽게 하나로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음의 화평을 이루고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는 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화평의 영적 의미

화평의 사전적 의미는 “마음이 기쁘고 편안함, 서로 사이가 화목하고 평화스러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기 원하시므로 화평의 영적 의미는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하고 아름다운 마음’이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유형의 사람과는 쉽게 화평을 이룰 수 있지만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과는 화평을 이루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느 누구와도 불편함 없이 넉넉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품고 화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에 선이 없으면 화평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내게 원치 않는 일이 생기면 마음이 불편하고 요동하기 때문입니다.

진정 마음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과 화평해야 합니다. 자신과 화평하려면 마음 속에 있는 미움, 시기, 교만, 자존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
대표전화 02) 818-7000



교회버스 (교회 차량/ ☎ 02) 818-7391~5)
주일·금요일: 각 지역별로 운행(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원)

지하철
2호선 구로 디지털단지역(번 출구)/ 환승 5536
7호선 남구로역(2번 출구) 도보 10분

사내버스
디지털단지 오거리 정류장/503,504,517,652,5618,5619, 5626,5630,5712,5714
구로디지털단지역 정류장 (시흥대로)/5,51,150,505,507, 5531,5534,5601,5616,5617,5620,5621,5623,5624, 5625,5627,5633,5713,6512,6635,금천06/환승 5536
연희미용고등학교 정류장 (남부순환도로)/ 651,5528 504,643,5626
구로디지털단지역 정류장 (시흥대로)/5,51,150,505,507, 5531,5534,5601,5616,5617,5620,5621,5623,5624, 5625,5627,5633,5713,6512,6635,금천06/환승 5536
만민중앙교회 앞 정류장/ 5536, 5615(편도), 5616(반대편 편도)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인]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녀오실가요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장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근본 원인

예 • 아 • 아

사랑하는 자녀가 원한다면 무엇이든지 해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하물며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어찌 자녀들이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지 않겠는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지만 그렇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구원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계명들을 지키지 않고 빛 가운데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덟 가지 질문을 통해 자신을 점검해 봄으로 가장 직접적인 원인, 곧 근본 원인을 찾아 그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

01

영적으로 살인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도 살인이지만, 영적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출 20:13, 요일 3:15). 만일 누구를 대할 때 마음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다면 마음이 있는 것이다.

이를 인정하고 내가 왜 상대를 미워하는지 근본 원인을 발견해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데 내가 누구를 미워할 수 있을까?' 하는 깨달음으로 감동을 주신다. 미움만 버려도 여기서 파생된 시기, 질투, 판단, 정죄, 헐기, 다툼으로 쌓였던 죄의 담도 함께 허물어진다.

02

이성을 볼 때 간음, 음욕이 일지 않는가?

하나님께서서는 간음, 음욕 등 정욕을 벗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바라신다(출 20:14, 살전 4:3~5, 마 5:28). 불같이 기도해 성령 충만을 입으면, 이 마음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깨달아지면서 내 마음 안에 있는 정욕이 싫어져 버릴 수 있게 된다.

동성 친구보다 이성 친구가 편하고 좋거나 이성을 대할 때 말투나 행동, 표정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정욕에서 다 비롯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 세상 문화에 젖어 이성을 좋아하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여기거나 경계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03

도적의 마음이 있지는 않은가?

도적의 마음이란 남의 것을 탐내는 마음이다. 이 마음의 저변에는 수고하지 않고 쉽게 취하려는 욕심이 자리하고 있다. 보증을 서면 안 된다(잠 11:15), 정도를 걸어야 한다 등 하나님 뜻을 알고도 불순종하는 이유는 수고 없이 많은 이득을 취하려는 욕심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일상생활에서도 불편한 자루, 종이 한 장 등 허락 없이 남의 것을 취하는 것은 도적의 마음임을 깨달아 근본 뿌리를 찾아서 뽑아낸다면 아무리 어렵고 다급한 상황에서도 결코 불의한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

04

항상 기뻐하는가?

성도들은 구원받아 아름다운 천국에 갈 소망이 있기에 항상 기뻐할 수 있다. 또한 믿음만 있다면 현실의 어려움과 상관없이 항상 기뻐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제든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자녀들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기 때문이다.

만일 어려운 현실을 만날 때 슬퍼하고 불평한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다. 어려움에 직면할수록 기뻐할 때 진정 살아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증거가 되므로 결국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

05

하나님 뜻대로 늘 기도하는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날마다 기도하게 된다. 또한 중심을 다해 기도하게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즐기거나 중언부언한다면, 혹 기도를 쉬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개인 기도를 할 때는 충만한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는 습관적으로 늘 하는 기도만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도 점검해야 한다. 또한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도 점검해 보자.

06

매일 성경 한 장 이상 읽고 한 절 이상 암송하는가?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느낄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늘 말씀 대하기를 즐겨한다(시 1:2). 성경에는 하나님 사랑이 담겨 있으며 하루하루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법과 비결, 하나님의 위로가 담겨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성경 말씀 대하는 것을 사모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대로 행하고 싶어진다. 하나님 마음과 뜻을 더 많이 알기 위해 늘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게 되는 것이다.

07

일 년에 한 명 이상 전도하는가?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은 행복이 넘친다. 그래서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의 비결을 전한다. 또한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기 때문에 영혼들을 사랑한다.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영혼들을 보면 어찌하든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열심히 전도하게 된다.

물론 전도하고 싶은데 담대함이 부족한 경우도 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과 영혼들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면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다.

08

주변 사람들과 화평한가?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나 자신과 화평한가?” 이 질문은 다른 질문들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항목이다.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없다. 이웃과 화평한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 선하고 사랑이 많아서 누구와도 부딪치지 않는다. 나 자신과 화평한 사람은 마음이 성결해 죄악, 비진리와의 싸움이 없다.

이처럼 근본의 문제를 해결해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헐면, 결국 모두와 화평한 사람이 된다. 가는 곳마다 불목과 다툼이 사라지고 화평케 되는 것이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 주요 프로그램 안내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2013.12.1~12.7	GCN TV 설교	예능 프로그램	해외성회 프로그램
2013.12.1~12.7 1차 영혼육 7-8 2차 영혼육 1-3 사랑장 12-16 • 선 8-12 창세기 강해 1-5, 103, 104 요한일서 강해 1-5 우리삶의 등불 4	• 마음 • 1차 영혼육 7-8 • 2차 영혼육 1-3 • 사랑장 12-16 • 선 8-12 • 창세기 강해 1-5, 103, 104 • 요한일서 강해 1-5 • 우리삶의 등불 4	• 성결과 충성 (이수진 목사) • 기쁘시게 하는 자 1 (이미경 목사) • 영의 세계 4 (이희선 목사) • 생명수 8 (신동초 목사) • 출애굽의 청사진 (정구영 목사) • 참된 사랑을 위해 2 (정리라 교육전도사) • 사랑합니다, 아버지 (이관규 장로)	• 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7 • 친양드려요 7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7 • 향기7 • 우린하나 4-6 • 플로리스트 7 • English 4 • 아름다운 예배 4 • [GCN특선영화] 나사렛 예수 1-3	• 러시아연합대성회 1 • 페루연합대성회 종합편 • 위성, 인터넷, 인터넷TV방송 A/S 문의 1577-2073 GCN 방송



“단지 세상 것을 버리기 위해 힘썼을 뿐인데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요”

신부정 집사 (2대대 15교구, 기사자동차 차장)



10년 전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제 삶은 신앙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교회 가는 것보다 스포츠나 TV가 더 좋았고, 일이 우선이었지요. 그러나 가랑비에 옷 젖듯이 매주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선교회 기관 모임에도 참석하며 변화되고자 하니 담배도 끊을 수 있었지요.

하지만 업무 특성상 술을 끊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2011년 11월, 술을 끊기로 작정한 저는 직장 동료들에게 “술을 끊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술을 권하던 동료, 상사들도 나중에는 음료수로 준비해 줬지요. 이를 통해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하

나님께서 지켜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믿음이 됐습니다.

이처럼 신앙이 달라지자 2012년에는 기관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지 않으니 저 자신은 물론, 기관원들의 영적 성장을 돕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지요. 영적으로 곤고해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동안 회사 일에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후회되는 일이 많았지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해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해 보자.’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근무지가 경기도 화성인데다가 야근과 해외 출장 등이 잦아 잘 지키지 못했지요.

그러던 중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 기도회가 9월 30일부터 11월 10일까지 개최된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혹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성전이라도 밟으리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지요.

처음 10일 정도는 미움, 시기, 서운함 등을 버리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 생애 처음으로 작정해서 하는 기도와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 10일, 잠이 오지 않아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그만 음란물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민망해 마음이 무거웠지요. 출근 길에 주유했는데,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고도 차가 이상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80~90km 주행 후에야 저의 실수로 잘못 주유한 것을 알았고 수리 견적만 약 200만 원이 나왔지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사 고 없이 지켜 주시며, 저를 간섭하고 계신다는 사랑을 마음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일들을 철저히 눈물 콧물 흘리며 통회자복 했습니다. 더럽고 추한 죄를 버리기 위한 기도는 더 간절해졌고 속옷이 젖을 정도로 땀 흘려 기도하며 마음 다해 찬양했지요.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 밤 기도하니 저 자신을 위한 기도가 점차 교회와 목사,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로 확장됐습니다.

어느새 특별 다니엘철야 기도회 42일째 마지막 시상식 날이 됐습니다. 이날에는 한 사람 한 사람 추첨을 하고 맨 나중에 당회장님 상 대상자를 부릅니다. 그런데 “2대대 15교구 신부정 집사님!”이라는 소리가 들렸지요. 참으로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당회장님 상을 수상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꿈만 같습니다. 성도들이 낸 수천 장의 참석 카드 중에 제 카드가 뽀뽀 이름이 불릴 때 그 감동은 마치 천국 길로 걸어서 단에 오르는 듯했습니다. 본당도 아닌 2성전 구역에서, 단지 세상 것을 버리기 위해 힘쓰며 기도했을 뿐인데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하신 하나님 사랑에 감사했지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컴퓨터 게임 끊으니 예배와 기도 시간이 즐거워요”

사가르 수나와르 (네팔만민선교센터)



올해 6월, 저는 네팔만민선교센터에 등록했습니다. 당뇨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시던 어머니는 2011년 4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시공을 초월한 권능의 기도를 받고 치료받으셨지요. 이 외에도 어머니는 류머티즘 관절염, 고질적인 아랫배 통증, 생리통, 부기 증세, 두통 등 많은 질병을 깨끗이 치료받으셨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 저는 컴퓨터 게임 중독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로 총을 쏘아 사람을

죽이고 귀신들이 나오는 폭력적인 게임이었지요. 공부와는 거리가 멀었고, 주변 사람과 싸우는 일이 잦았습니다.

저는 전에 당회장님께서 설교 후 해 주시는 환자 기도를 받고 심장병을 치료받았습니다. 이런 체험이 있는데도, 여전히 예배 시간에 장난치는 문제아였지요.

하지만 지난 10월에 열린 수련회 때 십자가 체험 시간에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지는 순간 마음이 몽클했습니다. 주님 사랑이 마음 깊이 와 닿았지요. 더욱이 ‘지옥’ 영상을 통해 얼마나 컴퓨터 게임이 안 좋은지, 이것을 통해 원수마귀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저절로 컴퓨터 게임이 싫어졌고, 수련회 후에는 매일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즐거웠지요.

하나님께서 제 시력도 좋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가정 형편상 안경을 살 돈이 없었기에 수업 시간에 칠판 글씨를 보기 위해서 앞자리로 나가야 했지요. 그런데 이제는 뒷자리에서도 칠판 글씨가 잘 보여 공부도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성적도 짧은 기간에 부쩍 올라 매우 기뻐졌지요.

컴퓨터 게임에 빠져 공부도 안하고 싸우고 예배 시간에도 장난만 치던 저였는데, 치료해 주시고 좋은 것만 주시는 사랑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자부예배, 금요일아침예배를 서울 민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민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동평로 168(부암1동) ☎070-8223-491~4, 010-9818-9833
- 서부산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 2동 109번지 백성 B/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 해운대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444-5 3층 ☎010-8020-7333
- 대구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8 온천초등학교 정문 앞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167-4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391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민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흥동 564-15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 1동 173-11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956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700번지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민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 2동 626-1 ☎055)247-8891~2, 010-5527-2073

- 밀양민교회 경남 밀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301-5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6-12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965-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 2동 520-20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민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98-1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민민성결교회 전남 여주시 둔덕동 500-5 ☎061)652-8311, 010-7317-2073
- 목포민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해동 765-2번지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산 153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16-14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 2가 929-1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 1동 250-3 ☎063)853-0675, 011-637-0263
- 군산민교회 전북 군산시 나운동 798-7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2-(순환대로 637)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637-2271, 010-7733-1327
- 강릉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12-4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민교회 제주시 노형동 2775-1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26-3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필동508-1 ☎031)485-9143, 010-5583-4697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0-7127-2073
- 김천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전동 698-12 ☎032)569-3835, 010-3430-3312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7-4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길 1동 348-5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3 ☎032)528-3830, 010-3430-331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9번지 ☎031)202-8480, 010-7127-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465-4 ☎031)635-9103, 010-7103-4097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165-1 ☎031)840-2906, 010-8163-1537